

김영록 '친정체제' 잡음 '모락모락'

도의회에 전례 없는 '반기'·채용개입 의혹 구설수
활동비 지급기준도 모호... "내부기강 잡아야" 여론

김영록 전남지사가 구축한 도청 내 '정무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잡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단체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라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무수행의 발목을 잡아왔던 전례에 비춰 내부 기강을 서둘러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13명의 정무라인이 도청에 입성했다. 지난 9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김재성씨가 도민행복소통실장에 임명됐고, 10월 말 신선훈 도지사 직속 홍보정책보

좌관에 언론인 출신 고영봉씨가 임용됐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무팀으로는 장혁(별정5급), 전진우(별정5급), 배정호(별정6급), 오재훈(별정6급), 김대중(별정6급), 이영근씨(별정7급) 등 8명이 채워졌다. 이중 김 지사 의원시절 비서를 지낸 장혁씨가 유일하게 '정무비서' 직함을 달고 활동 중이다. 정무팀과는 별도로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기간제로 비서실에 합류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좌관에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최철원씨와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을 지낸 홍성권씨가 합류했다. 정책고문으로는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위촉됐다. 정무팀은 채용 가능한 11명 중 8명이 입성했고, 특보는 신규 합류한 2명 외에 전임 지사 시절 임명된 4명의 임기가 내년 4월 2일까지 남아 유입됐다. 정책고문 역시 지난 2015년 위촉 후 연임해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동훈씨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국회 활동과 지역 내 여론 수렴 등 현장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구설도 잇따르고 있다. 최철원 특보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특보는 최근 전남도의회가 김 지사의 공약인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의회 상임위가 별다른 논란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을 허약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삭감 배경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는 이같이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에 대한 민간인 신분 특보의 전례 없는 '반기'에 도의회는 "지사공약의 핑계로 한 도의회 경시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 특보는 전체 6명의 특보 중 월 400만원을 수령하는 유일한 유급이지만, 활동비 지급기준이 모호해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오른쪽에서 네번째)가 8일 오후 광주시 동구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매일·골드클래스 연이은 사랑나눔 박철홍 회장 사회환원 의지 잇단 '쾌척'

소방공무원 자녀에 통큰 장학금
농아인협회 등에 수천만원 지원
주말 또다시 김장김치 전달행사



박철홍 회장

대표와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갖고 동구장애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썩덕천 전남매일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 나눔을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매일은 지난 8일 오후 동구장애인협회와 남구에 있는 곰두리봉사회에 직접 담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번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10kg짜리 120박스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열린 동구장애인협회에서는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노장숙 동구장애인협회장은 "올해 김장김치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했는데 김선남 대표가 직접 김장김치 나눔을 제의해 너무 감사했다"며 "이번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기니해결이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 가구에 배달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올해 겨울 김 대표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3시께 남구 무등시장에 있는 곰두리봉사회에서도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전남매일은 올해 모기업인 골드클래스와 보광건설(주)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회봉사와 기부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보광건설(주)은 지난달 29일 박상균

27일에는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재)룩스장학회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선남 대표이사가 후원금 2,500만원을 쾌척한 바 있다. 이 장학회는 사회의 힘든 곳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광주지역 5개 소방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회로, 언론사와 모기업이 이같은 거액의 장학기금을 전달하기는 극히 드문일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전남매일은 또 불우이웃에 대한 기여 및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지난 7월 7일 개막한 제22회 농아인대회와 지역대회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됐었는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선남 대표는 "썩덕천 전남매일과 모기업인 골드클래스, 보광건설(주)은 앞으로도 박철홍 회장의 '기업이익 사회환원' 의지를 이어 받아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공헌 및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이용섭 시장 현대차 협상 전면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상 전면 나선다. 이 시장은 9일 광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적전석(水適穿石)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심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시장인 제가 협상에 직접 나서서 하루빨리 투자 협상 재개 및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해 죄송하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8일 오전 광주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열린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재성 시의회부의장(왼쪽부터)등 참석자들이 타종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상 전면으로 나선 것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5개월만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어등산 등 주요 현안들은 해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가

장 중요한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와 한국경제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조기에 성공하기 위해 전면으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현대차와의 투자협상 실패를 교훈 삼아 협상팀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중흥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하일라이트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2번째 봉우리 인나푸르나(8091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8. 5. 13)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중흥그룹 계열사

중흥건설 | 중흥주택 | 중흥토건 | 중흥건설산업 | 예코세종 | 세종이앤지 | 중흥건설 | 중흥산업개발
중흥에스클래스 | 제이원산업개발 | 순천에코밸리 | 세흥산업개발 | 다원개발 | 새울건설 | 그린세종
신세종 | 중흥엔지니어링 | 중흥산업개발 | 중흥개발 | 청원개발 | 청원산업개발 | 청원건설산업 | 남도일보
나주관광개발 | 골드레이크CC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 중흥오투스파 | 중흥레포츠클럽 | 중흥장학회